

2019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9년 4월 29일(월요일) 14:00 ~ 15:0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이동호, 홍철운, 이동현, 이인재, 오한모, 김용우, 이문선, 박지석, 이태풍 위원

○ 불참자 : 유희철, 나창운, 조재영, 이홍래 위원

○ 상정안건

- 2019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안

-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주요안건은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안」,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양규혁)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중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안」에 대해 (박성일) 여 설명함.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양규혁) 바랍니다.

위원장 :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이 정 (양규혁) 도는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재무과장 : 지금 18년도도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육부 (박성일) 에서 예산 조금 남은 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그 돈이 세이브가 되다보니까 그 돈

교육부에서 받은 돈은 바로 그 때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11억 ~ 15억 정도 연말에 돈이 와서 그 돈이 세이브되서 저희가 19년도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대해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양규혁)

위 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월하는 사업비가 있고 반납하는 사업비 (최백렬) 가 있는데 그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 이월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들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올 (박성일) 해도 계속 하는 사업이고 반납하는 금액은 CK사업이나 인문역량강화는 18년도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규혁)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찬·반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먼저 상건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들 : 전원 찬성

위원장 :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 (양규혁)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 결산은 저희가 회계 법인의 결산 검사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님이 직접 오셔서 저 (박성일) 회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신 회계사님이 결산 결과보고를 한번 하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회계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있으신 위원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장 :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장기민간투자미지급금인데요.

(양규혁) 원래 656억에서 602억으로 준 것이 1년에 50억 상당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 앞으로는 계속 그 정도 되고요. BTL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박성일) 을 하고 20년간 상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대로 계속 가게 되어있고, 의과대학의 BTL이 지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정명회계법인 : 참고적으로 BTL 같은 경우는요. 이정도 상당한 부채가 재정상태표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매년 80%가 국가지원금 시설확충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부채는 생활관비로 상환하게 되는 나머지 20%정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정상태표 상에 전체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다 기록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 80%는 저희가 아까 시설비항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20%는 (박성일)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BTL은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이기
(양규혁) 때문에 질문해봤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감사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
(양규혁) 예산 편성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박성일) 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양규혁) 바랍니다.

위 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3억6천만 원이 어떻게 지원됐
(최백렬) 는가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교육행정일반 지원 사업에서 대학원 경쟁력 강화 2억증액인데 그 내용이 장학금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본예산때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박성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설치를 해서 위탁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억6천만 원인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등록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사실 대학하고는 안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원 쪽은 장학금이 아니라 중국 같은 데에서도 대학원으로 업무가 전체 국제 업무까지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대학원생들 유치하는 부분으로 많이 되었고, 지금까지 대학원이 작년까지만 하더라고 직원 한 분이 그냥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 사실 있어도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단과대학처럼 별도조직을 대폭 신설해서 대학원생 83%~87%의 충원율을 90%대까지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로만 올라가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수입금이 10억 이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심합니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가장 심한 데가 전북대입니다. 전남대하고 저희가 대학원생의 숫자가 줄어든 폭이 2배차이가 납니다.

위 원 : 대학원생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학원생들이 갑자기 줄었다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이인재) 보니까 이것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워크숍을 하면서 교양과목을 우리 물리학과에서 하다보니까 대학원생들이 많고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문제점을 조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머냐면 대학원생TA문제입니다. 대학원생 지금 보면 TA는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으로 주다보니까 재학생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의 액수가 7~8년 전에는 55만 원 정도로 오히려 지금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의 복지가 많은 면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위 원 : 제 생각은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이인재) 이라기보다는 TA인 경우에 노동의 대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대학도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대학원생들의 사기나 재정여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주거나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 지원해야 하는 동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깐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코러스인대요. 코러스는 우리대학이 정말 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도 잘 워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학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3억 정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코러스를 반드시 해야 되고 3억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부분은 제가 한번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교무 (박성일) 처나 학생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단기간 대책보다는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후에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러스는 저희가 일반 오아시스 외에 저희 재정 쪽이나 회계 쪽은 코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코러스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회계 재정쪽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코러스 유지보수 이 금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것을 전체 대학이 학생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번에 조정을 했냐면 이 부분이 국립대 육성사업에서 교육부에서 육성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금에서 하지 않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아시스 쪽에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면 재정분야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코러스에서 모든 걸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오아시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코러스를 사용해서 3억을 주는 (이인재)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 네 재정 쪽은 계속 바뀌게 되면 저희가 재정 쪽으로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박성일)

위 원 : 여태까지는 오아시스로 해 왔고 했으니 새로 개발될 필요가 없고 굳이 우리가 교 (이인재) 육부에서 코러스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꼭 그럴 필요가 있는냐는 의도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 저희가 제도가 기성회계를 하다가 대학회계라고 회계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박성일) 그러면 저희가 그 틀에 맞게끔 저희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전체 시스템자체를요. 그렇게 하면 전체를 개발하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근대 재정부분은 이걸 한번 개발한다는 것이 단위 대학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금액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전체 대학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개발해서 지금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기성회계하고 국고회계가 대학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교수들은 재정 쪽 (양규혁) 은 안보이니까 우리 쓰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코러스가 좀 많이 비용도 들지만 재정전체를 가지고 코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만 빠져나가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시간강사 (이동현) 사 강의료 29억인데 그게 비전업강사를 전업강사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금액만 29억입니까? 아니면 인상분까지만 포함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 전업 비전업은 나오기 전예요. 저희가 시간강사법 8월1일 개정된 것이 그때 당시 (박성일)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야 아는데요. 그것이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해당 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러는 와중에 옆친데 덮친 격으로 전업 비전업에 의해서 이것도 매뉴얼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이 지금 하향평준화를 할 거냐 상향평준화를 할 거냐가 있습니다. 만약 상향평준화를 하면 이 금액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위 원 : 그래도 29억을 편성한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현)

재무과장 : 8월 1일자 개정된 시간강사 법에 따라서 예전에 교무처에서 30억 정도가 추가로 들 (박성일) 어간 돈인데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와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로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강사 분들은 4주가 아니라 강의전담교수같이 매달 지급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동현) 지원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 시간강사 강의료는 국가에서 52%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48%를 부담하 (박성일) 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교육부에서 저희 국립대학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액을 증액하면 내년이 되면 돈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이분 들하고 교육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강의전담교수 같이 매달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 원 :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님들이랑 관련돼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 (이동현) 관련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테고 그분들의 실제 생활도 관련돼서 그냥 일단 이렇게 편성해왔다고만 말씀하셔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재무과장 : 교육부에서 올해 제가 상반기 때 한번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년도 (박성일) 예산 때는 지금 저희가 52%정도를 국고로 받고 있는데 금액을 더 올려서 가고 대학도 이제 이걸 교육부에서 돈을 다 쥐버리면 저희도 그거 온대로 편성을 하는데 사립대학이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전액을 다 편성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총장협의회에서도 이거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 대학 실정이 너무 어렵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예산 때는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본 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 방침은 그렇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원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기정예산에 1%로 되어있는데 4천7백만 원 증(오한모) 액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별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도 않는 금액인데 굳이 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학연구본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지난번 교수회 오셔서 별로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다. 매년 추정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빼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재원은 없나요?

재무과장 :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약대 유치에 따른 정책연구를 갑자기 중간에 보고회 발(박성일) 표를 두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산학연구본부에서 지원을 조금 하겠다고 했던 거고 새만금캠퍼스 통학차량은 그 전부터 산학연구본부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새만금에 있는 캠퍼스가 산학연구본부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전입금 협의를 할 때 그냥 같이 협의를 해서 최초 편성을 해버리면 좋은데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지정되어 오면은 그만큼 가게 되어있고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넘겨줄 것이 있을 때만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되도록 당초예산에 협의를 해서 서둘러서 하고 중간에 진출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 : 아까 이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원 경쟁력강화에 2억이 간다는데(최백렬) 이 2억이 대학원 행정경쟁력에 2억이 아니라 대학원 자체 어떤 교육에 경쟁력에 지출이 된다면 선순환으로 대학원생이 더 오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인재 위원님의 물리학과나 화학과에서 그 동안에 대학원생들이 TA하면서 55만원을 받다가 지금 2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안와요. 대학원생이 안오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지원에 관련된 지원보다는 대학원교육이나 대학원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선순환으로 학생들도 많이 올꺼고 등록금 수입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해당 부서 쪽에 얘기를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박성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 원 : 국제화 지원에 10억9천2백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교육(홍철운) 활동운영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 이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변경된 것만 표시해놓은 것입(박성일) 니다. 본예산은 올 초에 재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위 원 : 강의실 환경개선에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된 것이 갑자기(이동현)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 원래 해년마다 강의실 쪽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책걸상이 라든가를 조(박성일) 치를 해줍니다. 지금 약대로 10억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약대 기자재가 굉장히 비싼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대부터 먼저 하고 강의실 책걸상 교체도 학생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개선을 해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돈을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불용액이 조금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뿐 안계십니까?

(양규혁)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분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

(양규혁) 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들 : 전원 찬성

위원장 :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참석인원 전원이 찬성하였으

(양규혁) 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양규혁) 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인 이인재, 김용우,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이인재, 김용우, 박지석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이인재 위원님, 김용우 위원님, 박지석 위원님 이렇게 3분이 간

(양규혁) (間)서명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그러면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

(양규혁) 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2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김강욱) 습니다.

작성일 : 2019. 5. 6.(월)

위원장 : 양 규 혁 (인)

간 사 : 김 강 욱 (인)

기 록 자 : 김 선 응 (인)